광주 의료계 '리베이트' 수사 병의원·제약사 등 바짝 긴장

광주지검, 모 종합병원 연구실·의약품 도매업체 압수수색

검찰이 광주지역 모 종합병원 의사와 의약품 도매업체 간의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검찰은 해당 의사나 업체에 대한 비위 의혹 확인은 물론, 의약품 납품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조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병·의원과 제약 및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6일 의약품 납품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광주 모 종합병원 의사의 연구실과 모 의약품 도매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의사의 연구실에서 컴퓨터 파일 등 각종 자료를 압수하고, 업체의 거래 장부 일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병·의원과 제약회사 등은 이번 검찰 수사의 '불똥'이 자칫 지역 의·약업계 전반으로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의사와 제약업계의 '뒷돈' 거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전반적인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리베이트'는 의약품 구입을 대가로 제약회사나 납품업체들이 의사와 병원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로, 국내 의·약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혀왔다.

지역 의·약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수사가 의약품 거래의 관행상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경쟁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업체와 해당 의사간 거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최근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8개 제약회사 가운데 한 회사로부터 이 업체가 의약품을 대량 구매하는 과정이 검찰에 포착돼 수사가 시작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의·약업계가 한층 긴장하는 모습이다.

다만 검찰이 압수수색 대상을 의사 개인과 업체 한 곳 만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학회 활동 지원과 각종 내부 행사 지원 등 관행화된 유착관계에 대한 수사일 수도 있다는 게 의·약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지역 의사와 의약품 도매업체 사이에 돈이 오갔다는 첩보가 입수돼 사실 확인 차원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일단 해당 의사와 납품업체 등 개인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형마트 식당 원산지 표시 단속 3일 식약청과 농산물 품질관리원, 북구청 관계자들이 광주시 북구 두암동 삼성홈플러스 내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화순 농협장 선거 돈봉투 오갔다"

후보자 사무실·차량 수색

광주지검 공안부

최근 치러진 화순농협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에 따르면 농협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일 A후보자의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수십만원의 돈봉투가 오갔다는 첩보를 입수, 이날 A후보자의 컴퓨터 내장 자료와 선거 관련 문건 등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선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며 "수사 초기 단계여서 아직까지 금품 살포 여부나 규모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농협 김 납품' 22억원 가로채

검찰, 가공업자 등 3명 구속

농협의 허술한 납품체계와 검수과정의 허점을 노려 20억원대를 편취한 수산물 가공업자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다.

3일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강진 G농협에 김을 납품하면서 수량을 부풀려 수십억원을 챙긴 모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김모(42)씨와 공장장 김모(46)씨, 이사 이모(41)씨 등 3명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4월 G농협에 맛김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량을 속이는 수법으로 실제로 20억원어치를 납품해놓고 42억원어치를 납품한 것으로 꾸며 2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김을 납품하면서 박스당 70속 들이 김박스를 다시 30~40속 들이 박스에 포장하는 수법으로 수량을 속여 거액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G농협 측이 김씨 등과 결탁해 사기 납품을 알고도 묵인했을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전 조합장 등 관계자 4명을 조사할 계획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지자체도 신종플루 비상

광주 3개 구청 공무원 5명 확진 판정

광주시 구청 공무원들이 신종 플루에 잇따라 감염되면서 지자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2일 광주시와 5개 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재 광주시를 포함한 5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5천907명) 가운데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별로는 서구가 3명, 남구와 광산구가 각각 1명씩이다.

이들 공무원들의 경우 대개 민원업무 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인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 간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신종 플루가 의심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가족도 20세대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신종 플루에 감염된 공무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종 플루 확산 추이로 볼 때 감염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보건당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공무원간 집단감염이 확산될 경우 행정 공백까지 우려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완치 때까지 병가(病暇) 조치하고, 감염이 의심되면 1주일간 공가(公暇)를 주어 휴식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2일 신종플루로 학교 등이 휴업해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은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우선 '연가(年暇)'를 사용할 수 있고 연가 일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공가(公暇)'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복무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참 〈7944〉 김종두

'건설사주 납치' 30대 구속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건설사주 납치사건에 가담한 문모(35)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문씨는 지난 2006년 11월 광주시 남구 모 호텔에서 모 건설사주 K(49)씨를 납치, 5시간30분간 북구 일대를 끌고 다니며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지만원씨 비방글' 누리꾼에 벌금형

쌍나팔

○…탤런트 문근영씨의 '기부 선행'에 대한 논쟁 과정에서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비방한 글을 올린 누리꾼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시철)은 3일 지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39)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

○…지씨는 지난해 11월 문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년간 8억5천만원을 기부해 '기부천사'라는 찬사를 받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부천사 만들기, 좌익세력의 작전인가' 등의 비판적인 글을 올려 색깔론 논쟁을 야기.

○…이에 누리꾼 임씨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 등의 글을 올려 지씨를 모욕한 혐의.

/연합뉴스

"신종플루 휴업하면 방학 단축하나요?"

수업일수 198일 못 채우면 방학 중 보충수업 불가피

신종플루로 휴업학교가 늘어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방학 중 보충 수업 등 수업 결손에 따른 학교의 대응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종플루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인 만큼 법정 수업일수의 10%를 줄일 수 있고, 이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학기중 보충수업 또는 방학 중 보충 수업을 해야 한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법정 수업일수는 연 220일로, 천재지변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10분의 1(22일) 범위내에서 감축·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대부분의 초·중·고교에서는 주 5일제 수업 실시와 재량 휴일 등으로 204~205일 내외를 수업일수로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은 신종플루로 휴업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법정 수업일수를 최소 198일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미 15일 정도의 수업일수를 활용한 상황이어서 신종플루로 7일 이상 추가 휴업을 할 경우에는 법정 휴업일수가 부족해 방학을 줄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신종플루로 2회 이상 휴업한 학교는 방학이 1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 교육청은 휴업학교에 대해서는 학기중 보충수업 등을 독려해 방학 중 수업을 막는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방학중 보충 수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재까지 광주에서 신종플루로 휴업을 한 학교는 59개교이며 전남은 283개교에 이르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